



'내일은 나도 스타.' 멋진 연예인을 꿈꾸며 광주 조이댄스아카데미에서 댄스연습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모습에 활기가 넘친다.

/최현경기자 choi@kwangju.co.kr

## 아이돌 스타 30% 배출 광주·전남 오디션 열풍

학원마다 연예인 꿈꾸는 수강생 수백명

서울 대형기획사들 정기 원정 오디션도

지난 달 말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조이댄스&플러그인 뮤직 아카데미'는 하루 종일 북적거렸다. 벽면에는 하정우 등이 소속된 판타 지오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 일정이 붙어 있었다. 현재 수강생 600명 중 정식으로 오디션 등을 준비하는 수자는 200여명. 연령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300여명까지 감안하면, 연예인을 꿈꾸는 이들은 훨씬 늘어난다.

〈관련기사 2면〉

며칠 뒤 인근의 모드실용음악학원, 이른 시간이었지만 한편 정도의 작은 연습룸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역시 노래 연습에 한창이었다. 15명의 보컬 코치

가 가르치는 300여명의 수강생 중 가수를 꿈꾸는 이들은 약 절반정도다.

오디션 열풍이 불고 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연예인이 되는 길은 기획사 오디션을 통해 연습생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대국민 오디션 프로인 '슈퍼스타K'가 성공을 거두면서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 출신으로 '버스커버스커'의 리더를 맡고 있는 장범준이 대표이다.

조이댄스 아카데미 박대홍 대표는 "요즘 아이들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고 부모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지만 보컬 트레이너, 댄스강사, 작곡가 등 좀더 구체적인 꿈들을 갖는 아이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일 만에 느껴지는 투명하고 매끄러운 피부

피부 컨디션 개선에 만족한다 90%

피부 매끄러움에 만족한다 90%

피부 윤기가 증가함을 느꼈다 90%

피부 보습력에 만족한다 90%

3일 후, 기대하세요!  
피부 좋아졌다는 말!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바이오인자로 구성된 Bio-redox™ 성분으로  
3일만 사용해도 피부 좋아졌다는 칭찬을 듣게 해드립니다.  
아이오페 연구진은 25일간 빛, 온도, 물, 공기를 제어하는  
바이오 인큐베이팅 기술을 통해 항산화효소 배양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피부 친화적인 바이오성분인 Bio-redox™가  
바이오 에센스 한 병에 93.7% 함유되어 피부상태를 빠른 속도로 개선시켜줍니다.

3일 만에 느껴지는 투명하고 매끄러운 피부

피부 컨디션 개선에 만족한다 90%  
피부 매끄러움에 만족한다 90%  
피부 윤기가 증가함을 느꼈다 90%  
피부 보습력에 만족한다 90%

바이오 에센스 임상실험자 대상 3일 후 만족도 조사 결과  
2012.4.8~2012.4.30 성인여성 20명 대상 / 조사기관: 주디미트로

NEW  
바이오 에센스  
**IOPE**

## 안철수 "文지지 제뜻 받아주실 것 믿어"

선거캠프 해단식... "새정치의 길 위에 항상 함께할 것"

### 선택 2012 대선 D-15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는 3일 "저와 함께 새정치와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어오신 지지자 여러분께서 이제 큰 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3·4면〉

안 전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 참석, 인사말에서 "지난 11월23일 사퇴 선언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

종군하겠다. 이제 단일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 달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한 것으로 지지자에게 사설상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민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안 후보는 오늘 백의종군해서 최선을 다해 정권교체에 기여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다시 한 것"이라며 "또 지지자들에게 분명하게 단일후보로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안 전 후보의 지지 의사 표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대선 최대 승부처이자 안 전 후보의 대표적 지지세력인 중도·무당파층의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날 안 전 후보의 낮은 수위의 지지 밝은은 공직선거법 제약에 따른 것이어서 지지의사 표면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안 전 후보의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정도를 기늠하는 자대가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 전 후보는 '새정치'를 내세우며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과열 혼탁 양상으로 번진 '네거티브' 대선전과 관련, "지금 대선은 거꾸로 가고 있다. 새 정치를

바라는 시대정신은 보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흑색선전, 이전투구,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전 후보는 나아가 향후 정치 행보를 암시했다. 그는 "오늘의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며 "국민께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이 낚아주신 새정치의 길 위에 저 안철수는 저 자신을 더욱 단련해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문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안 전 후보의 말씀에 감사 드린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상무·하남지구 노른자위 땅에 1300세대 광주시 20년만에 영구임대아파트 짓는다

광주시가 상무지구와 하남지구 '노른자위' 땅에 20년만에 영구임대 아파트 1300세대를 신축할 계획이어서 '집 없는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5년 까지 국비 765억여원과 시비 135억여원 등 총 900여억원을 투입, 영구임대 아파트 1300세대를 신축한다. 이는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첫 사례로, 광주도시공사가 짓게 된다. 그동안 영구임대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

사에서 신축해 왔다. 광주시는 이번 입대아파트 신축으로 현재 3~5년씩 기다려야 하는 입주 대기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우선 2015년까지 541억원을 투입, 서구 차평동 상무지구 소각장 인근 운동시설용지 1만5496m<sup>2</sup>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지하1~지상 20층 규모의 소형 영구임대주택 414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고, 신도시 주거단지인 수완지구도 인접해 있어 아파트 부지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광주시 안용훈 도시재생과장은 "지난 20년간 영구임대아파트가 신축되지 않으면서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 시민이 7000명을 넘어섰고, 입주를 하려고 해도 최대 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불량을 늘려 나갈 계획이며, 부지도 입지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는

### ■상무



### ■하남



지난 1993년 12월 서구 금호 시영아파트(1500세대)와 두암동 주공 4단지 아파트(1133세대)가 마지막으로 지어졌으며, 현재 10개 단지에 1만3920세대, 2만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는 7063명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